

# 정교해진 KIA 좌완 광도규 '불펜 조커' 노린다

호주리그서 실전 경험 쌓고 미국 드라이브라인에서 장단점 파악  
“몸에서 힘 빼니 제구 좋아져...안타 맞아도 자신감 있게 던질 것”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경기에서 KIA 광도규가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철저하게 예습-복습을 한 '모범생' 광도규가 자신감으로 2024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개막을 앞두고 나성범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여전히 올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월 크로우가 새로 가세한 선발진과 힘을 더한 마무리 정해영이 버티고 있는 필승조의 구성이 좋다.

KIA는 탄탄한 마운드로 초반 질주를 노리고 있지만 불펜 고민은 남았다. 필승조와 함께 승리를 만들어 낼 불펜진의 힘이 필요한 KIA, 2년 차 광도규가 '불펜 조커'를 노리고 있다.

광도규는 지난 시즌 '히트 샴퐁'이었다.

좌완 스리쿼터인 광도규는 지난해 자체 연습경기에서 까다로운 투구폼과 150km에 육박하는 스피드로 단숨에 눈길을 끌었다. 시범경기 5경기에서 4이닝을 소화하면서 '0'의 행진을 한 그는 4월 13일 한화를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프로 첫해 14경기에 나온 그는 강렬했던 출발을 생각하면 아쉬운 8.49의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올 시즌에도 광도규는 시범경기 4경기에서 3.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광도규는 "작년에도 시범경기 때는 잘 던졌다. 정식 시합 들어가서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시즌이 끝난 뒤 '복습'을 잘했고, 호주와 미국에서 '예습'도 했다.

광도규는 캔버라 캄버리 소속으로 호주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국 드라이브라인에서는 자신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았다.

광도규는 "호주에서는 요령이 생겼고, 미국에서는 내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잘 쓸 수 있는지를 배운 느낌이다"며 "호주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나가서 부담 없이 승부를 했다. 마운드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을 많이 배웠다. 미국에서는 감에만의 존했던 부분을 알게 됐다. 투구폼, 던지는 매커니즘 등 분석을 통해 확인하면서 뭘해야 할지 알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광도규는 드라이브라인에서 몸의 요인, 힘이 좋은 부분 등 자신이 신경 썼던 부분을 장점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중심 이동 방향을 홈플레이트 쪽으로 흐트러짐 없이 일정하게 나갈 수 있게 신경 썼다.

광도규는 "예전처럼 몸에서 힘을 많이 쓰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게 맞다. 힘을 덜 쓰는 게 맞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성은 실전에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광도규는 "마음이 편해졌다. 현종 선배님께서 던지는 자세가 투수가 가장 편해야 한다고 하셨다. 투구폼 밸런스를 바꾼 게 그런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세트 들어가면 불을 던지고,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는 와이드업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주자가 있어도 컨트롤 하는 게 조금은 편해졌다"며 "호주리그에서 멘탈을 잡은 부분도 있다. 안타를 맞더라도 다음 타자에 집중하는 부분이 더 나아질 것 같다. 공을 던질 때 의미 있는 볼들이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시범경기를 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자, 자신감의 바탕이 된 것은 '존'이다.

광도규는 "이동중 코치님과 스트라이크존을 어떻게 쓰느냐를 생각하면서 하니 시야가 넓어졌다. 존 자체를 생각하는 관점, 시야가 달라졌다"며 "ABS는 크게 신경 안 썼다. 로보트판이라고 하고를 떠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졌다"고 이야기했다.

마운드에서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광도규는 많은 성장을 했다. 드라이브라인에서 함께 한 형들이 그의 스승이 됐다.

광도규는 "미국은 나중에 연봉 높아지고, 돈이 생기면 또 갈 수 있을 텐데 형들과 같이 갈 건 도움이 많이 됐다. (이)의리형은 멘탈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줬다. 행동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이 있는데, 의리형한테는 당연했던 부분이 있었다. 생각했던 노력을 더 당연하게,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영이 형한테는 운동을 많이 배웠다. 관심 있던 운동이 많았고, 맨몸 운동에 대해 배워보고 싶었는데 형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미국에서 이번이 아니면 다시 못할 경험을 했다. 형들이랑 했던 게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비시즌 열심히 야구를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광도규가 KIA의 '우승 후보'에 힘을 보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치르는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왼쪽)이 김영권, 김진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국전 '원톱' 조규성이나 주민규냐

오늘 서울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차전  
황선홍 임시감독 데뷔전...최전방 누구 세울지 관심

간판 골잡이 출신의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은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최전방은 누가 책임질까.

한국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을 치른다.

이번 대표팀에서 축구 팬의 관심을 끄는 자리 중 하나는 최전방 공격수다.

임시로 A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황선홍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현역 시절 국가대표 간판 스트라이커였다는 점에서 이번 달 태국과의 2연전에서 어떤 선수를 최전방에 내세울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

모양새만 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원톱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조규성(미트윌란)의 아성에 '늦깎이 국가대표' 주민규(울산)가 도전장을 내미는 형국이다.

조규성은 올 시즌 덴마크 리그에 진출해 리그 10골을 기록 중이다.

다만 최근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다.

개막 후 첫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하며 '역시 조규성'이라는 정찬이 잇따랐지만, 아시안컵 및 리그 후반기 시작을 기점으로 기세가 한풀 꺾

인 모습이다.

조규성은 아시안컵 이후 소속팀에 복귀해서 페널티킥을 두 번이나 실축하는 등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었고, 팀 합류 직전 오랜만에 가동한 득점포 역시 페널티킥이었다.

아시안컵에서 펼친 활약상도 큰 기대감에 비해 아쉬웠다는 평가다.

조규성은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3경기과 16강, 8강, 4강 토너먼트 3경기까지 총 6경기에서 4경기는 선발로, 2경기는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아 평균 60분 넘게 뛰었다. 그러나 아시안컵 득점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넣은 동점 헤더 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시안컵 기간 내내 대표팀이 경기력 및 득점력에서 비판받았던 것도 결국엔 골 결정력이 부재해 기대만큼 시원한 득점이 터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황선홍 감독은 동남아시아의 강호 태국을 상대로 대승, 완승을 거둬 '달라진 대표팀'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경기력을 지적받아온 대표팀의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주민규를 톱에 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또 주민규의 A매치 출전에 대한

간절함은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

연령별 대표팀도 단 한 번도 거처본 적 없는 주민규는 만 33세에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1990년생 주민규는 김영권과 더불어 대표팀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지만, 국가대표 경력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대표팀 '만내(만내+막내)'다.

주민규의 골 결정력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 주민규는 최근 세 시즌 동안 K리그1에서 56골을 넣은 최고의 골잡이다.

그동안 득점왕도 두 차례나 차지했다. 2022시즌에는 17골로 조규성(당시 전북)과 동물이었지만 출전 시간에서 밀리며 아쉽게 2위에 올랐을 뿐이다.

황선홍 감독은 국가대표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3년간 K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없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다"며 주민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 워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체제에서 즐기치게 외면받았던 '만내' 주민규는 "막내라고 생각하고 머리 박고 간절히 뛰겠다"며 A매치에서 누구보다 매서운 발끝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주민규가 21일 태국전에 출전하면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전 기록(33세 343일)도 세운다.

태극마크라는 기적을 현실로 이룬 주민규는 이제 A매치 데뷔골을 목표로 목표포 그라운드를 밟을 생각이다. /연합뉴스

## 샌디에이고 고우석, 마이너서 시즌 시작

MLB 서울시리즈 명단 빠져

불펜 투수 고우석의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개막 2연전 출전이 불발됐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개막전이 열린 20일 서울시리즈 로스터 26명을 발표했다.

오른손 불펜 고우석의 이름은 빠져있다.

샌디에이고는 선수 31명을 전세기에 태우고 15일 서울에 도착했다.

고우석은 16일부터 19일까지 훈련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거쳐 결정전 개막전 로스터 26명에 들지 못했다.

샌디에이고는 "고우석을 마이너리그 트리플 A 엘 파소 치와와스로 내려보낸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프로야구 LG 트윈스에 1차 지명돼

프로 생활을 시작한 고우석은 올해 1월 4일 샌디에이고와 2+1년, 최대 940만달러에 계약했다.

계약서에 "2025년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포함했지만, 올 시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우석은 MLB 시범경기에서 5경기 평균자책점 12.46(4.1이닝 8피안타 6실점)으로 고전했고, 18일 고척돔에서 열린 '전 소속팀' LG와 평가전에서 1이닝 동안 투런 홈런 포함 2안타를 맞고 2실점 했다.

고우석도 서울시리즈 로스터 탈락을 예감하고 있었다.

고우석은 18일 LG와 평가전이 끝난 뒤 "혹시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해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풀타임 빅리거의 꿈을 이루려면 내 공이 더 좋아져야 한다. 응원해주신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투수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찬호 시구  
박찬호가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개막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에 앞서 시구하고 있다. /연합뉴스